

16 장. 인자 예수

A. 주제 (Thesis)

- 예수에게 적용된 “인자”라는 호칭. 온전한 참 사람(the whole one), 완벽한 “벤 아담”(ben adam), 불멸성의 영원으로 가는 문을 여는 유한자. 이것이 예수의 정체성이다. 즉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돌파해 들어올 정도로 온전한 참 사람의 삶이다 (p261).

B. 문제점 (Problems)

- 사람들이 예수와의 접촉을 통해 체험했다고 믿는 예수 체험을 충분히 묘사 하기 위해 장엄한 언어사용과 이미지를 극대화 하고 문자화 했으며 마치 역사적 사건인 양 묘사했다. 이후 “인자”라는 호칭은 극히 단순한 용어로 시작하여 다른세상의 (otherworldly)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신적이며 기적적인 의미로 발전 하였다.

C. 논점 (Argumentation)

1. “인자”라는 용어는 포로기 예언자 에스겔이 기원전 6 세기에 쓴 저작을 통해 유대인 전승에 처음 편입되었다.
 - 90 회 이상 단순히 호칭으로 사용 (ben adam – son of human being)
 - 예언자는 보아야 할것을 보고 해야 할것을 하는 것과 관련됨.
 - 유대민족의 차별화, 정체성 회복, 율법서 확대에 힘씀
2. “인자”라는 호칭은 그후 400 년간 안 나타남
3. 기원전 2 세기 다니엘서에서 변형된 개념으로 다시 등장
 - 극도로 퇴락한 상황 -> 희망의 소멸 -> 해방에 대한 기대 포기
 - 초역사적, 묵시적, 세계의 종말 사상 유입
 -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올 메시아 희망이 첨가됨 (신화적, 초 자연적)
 - 천상적 인물: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통치
4. 복음서 기록 전에 죽은 바울은 이런 신화적 “인자”인 예수 개념을 모름.
5. 복음서 (바울 이후 마가 이전 : 60 년대)에는 “인자”가 예수를 해석하는 기본적 시각

- 마가: 하나님으로 부터 올 초자연적 “인자”로 간주 (2 + 12)
 - 마태: 초자연적 이미지 확장과 예수와 인자를 동일시 (27)
 - 누가: 역사의 종말을 가져올 인물, 예수 = 인자 (27)
 - 요한: 삶의 평화와 온전함을 이룩할 자 (13)
6. 예수는 궁극적 심판자인 초자연적 “인자”(the supernatural “Son of man”)인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온전함의 원천(the source of wholeness here and now)인 메시아로 해석되었다.
7. 예수의 삶은 사랑 받을 수 없는 자를 변화시키는 사랑, 거부당하는 고통을 치유하는 용납, 파열을 극복하는 온전함, 그리고 모든 한계를 초극하기까지 확대하는 생명이었다. (p. 259)

D. 생각해 보기

- 나에게 “인자”는 무슨 의미로 해석 되어 지나?
- 나는 어떤 체험에 근거하여 예수를 “인자”라 고백 할수 있나?